



제목	페르시아 문화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살림
발행일	2004. 12. 30.
저자	신규섭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96
ISBN 또는 ISSN	978-8952203175

내용 요약

페르시아 문명을 소개한 책. 페르시아 문화는 아랍을 넘어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심지어 그리스에까지 흔적을 남겼다. 이 책은 인류 최초 문명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문화현상을 읽어내며 그동안 페르시아 문화에 대해 알려진 사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슬람 문화에 관한 새로운 사고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이슬람의 양대 종파인 순니파와 쉬아파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아랍 이슬람과 페르시아 이슬람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 유럽 사회는 중세의 이슬람을 발판으로 성장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자연과학과 의학뿐만 아니라, 서예, 회화, 예술 분야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중세 서아시아의 중심 언어는 꾸란의 언어인 아랍어였지만, 그 뿌리에는 페르시아인과 그들의 문화가 있었다. 즉, 페르시아어는 이 지역 공통의 문화어로서 문화, 예술의 중심에 있었다.